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파리서 글로벌 홍보전

‘코리아엑스포’ 참가 남도 미식 매력 알려 파리한식협회와 협약 현지 네트워크 구축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글로벌 홍보전에 나서며 등 박람회 사전 불입에 주력하고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17일 “지난 15일까지 3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 (Korea Expo Paris 2025)’에 참가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코리아 엑스포는 파리 포르트 드 베르사유 (Paris Expo Porte de Versailles)에서 열렸다. 총 144개 국내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한류 확산과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지원하는 국제행사로 진행됐다.

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엑스포에 참가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의 전시관과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남도미식의 고유한 콘텐트를 중심으로 누리소통망 (SNS) 구독 이벤트와 남도미식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참여를 유도하는 등 남도미식의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현장에서 파리한식협회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해 의미를 더했다. 두 기관은 미식산업박람회의 유럽 현지 홍보, 청년 미식 셰프 인재 양성, 전남 식재료의 해외 진출 확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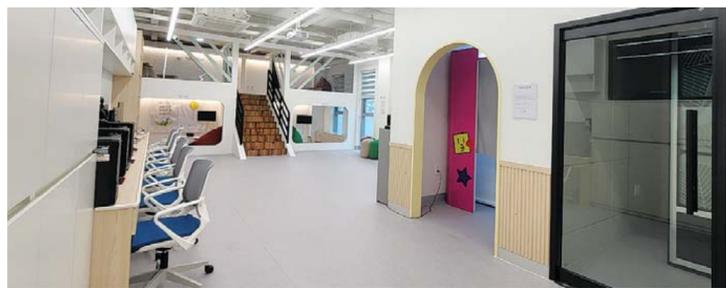
홍양현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장은 “세계적 미식 강국인 프랑스에서 박람회를 소개하고 국제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뜻 깊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남도미식의 세계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1일부터 26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입장권은 오는 30일까지 티켓링크와 네이버를 통해 40% 할인된 가격인 6천원에 예매할 수 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은 유럽 27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주한 유럽연합 (EU) 대표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타이완관광청 등 두 나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는 한-대만 관광교류회의에 참가해 박람회를 홍보하는 등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국제행사로서 위상을 높일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이 지난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5 코리아 엑스포’에 참가해 주요 프로그램 소개와 남도 미식 강연 등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를 집중 홍보했다. <전남도 제공>



남구 진월동에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 개소

시, 내년까지 총 10곳 조성

광주 남구 청소년 자율공간 ‘따:숲’이 17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 ‘청소년 자율공간’은 민선 8기 광주시 공약사업으로 청소년이 비용 부담 없이 문화·오락 체험, 학습, 휴식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해 조성하는 소규모 청소년 전용공간이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총 1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개소한 남구 진월동 청소년자율공간 ‘따:숲’은 지난해 개소한 북구 임동, 광산구 비야동에 이은 세 번째 공간으로 청소년 전용라운지, 노래방, 포토부스, 게임존, 북카페 등을 갖췄다.

특히 야외 테라스에는 캠핑장이 마련돼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또래와 소통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다.

광주시는 자율공간 조성 시 청소년들이 공간 기획과 조성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공간은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며 “청소년 자율공간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주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책임는 광주’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공모

재인증 27일·신규 내달 1-11일까지 접수 학교·공공기관 도서구매 우선 계약 혜택

광주시는 지역서점 보호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지역서점 인증제’ 신청을 오는 7월11일까지 받는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광주시에 매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서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지역서점으로 인증해 각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 인증에는 신규 서점 뿐만 아니라, 인증이 만료되는 기존 인증 서점 80곳에 대한 재인증도 함께 이뤄진다.

인증 요건은 ▲광주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서점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 ▲다른 업종과 겸업하지 않는 서점 ▲겸업하는 경우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 도서 판매를 통한 금액인 서점이다.

인증 기간은 심의 완료일로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이며 이후 재심사를 거쳐 재인증 절차가 진행된다.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은 도서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도서 구매 때 우선 계약 대상이 된다. 또 광주시가 추진하는 지역서점 홍보·활성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광주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 인증을 받은 서점과 계약을 우선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재인증 대상 서점의 경우 27일까지, 신규 인증의 경우 7월1-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tumbler79@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거쳐 7월 중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전순희 문화유산자원과장은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의 자생력을 높이고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신규와 기존 서점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

/변은진 기자

전남개발공사, 장마철 대비 안전 실태 점검

전남개발공사는 17일 “장마철을 앞두고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3일 간 전남형 만원주행 등 5개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기 대비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 (KALIS),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

성, 공사 중인 사업장 전반에 대한 구조물 붕괴, 배수 체계, 절·성토 사면 관리 상태, 감전·침수 위험요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 조속히 개선할 계획

이다.

또한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공사 중지 및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우기철은 작은 부주의가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선제 점검과 예방 조치가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국제구호개발 NGO 코코넛
COCONUT

아프리카 지원 먹거리 장터

사파리의 꿈

의류판매 및 바자회

KIMCHI

FOOD

MARKET

BANCHAN

일시 2025년 6월 22일 낮 12시~2시

장소 광주문화체육센터 (광주광산구 사암로 46)

당신의 **1천 원**이 만든 기적,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내일을 밝힙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코코넛
COCONUT은
전세계 소외받고 열악한 곳에
교육·구호·환경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합니다.

문의 062-946-1199

메뉴

- 육계장 7,000원
- 냉면 7,000원
- 두루치기 덮밥 7,000원
- 김치류 5,000원~

그 외 오명꼬치, 떡볶이, 닭꼬치, 멸치볶음, 식혜, 구운계란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무등일보

전남매일 全南日報

우리군민신문

(주)엑스피그룹

피플라이프

이레정보통신

동명환경닥터

해누리팍